

# 광주 학교 3곳 중 2곳, 반경 1km내 성범죄자 산다

### 초·중·고교 200곳 해당...전국 평균보다 24%P 높아

### 27곳은 6명 이상 거주...정부·교육당국 대책마련 시급

광주지역 초·중·고교 3곳 중 2곳의 지적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창 성장기인 중학생들이 다니는 중학교의 70%가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어 정부와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반경 1km 이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지역 초·중·고교 308곳 중 65%에 달하는 200곳에서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있다. 이는 전국 평균

41%보다 무려 24%포인트 높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71%)·부산(66%)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학교 주변 성범죄자 거주 비율이 높아 그만큼 위험 요소가 높다는 분석이다.

학교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광주지역 학교는 200곳 중 55곳이며, 2명은 42곳, 3명은 33곳, 4명은 22곳, 5명은 21곳이다. 6명 이상 거주하는 학교도 27곳이나 됐다.

특히, 중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많이 살고 있었다. 광주지역 중학교 88곳 중 62곳(70%)에서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고

■ 학교 반경 1km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 (13.3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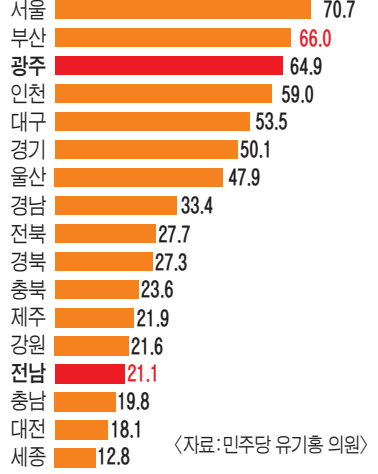
지역	학교급별 전체 학교수	거주 성범죄자수별 학교수 현황						성범죄자 없는 학교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광주	초	148	29	21	14	9	7	15	53
	중	88	15	13	8	9	10	7	26
	고	67	11	8	11	4	4	5	24
	특수	5	0	0	0	0	0	0	5
	소계	308	55	42	33	22	21	27	108
전남	초	426	43	11	6	2	11	6	347
	중	247	39	6	6	1	1	4	190
	고	153	24	7	2	2	2	3	113
	특수	8	0	0	0	0	0	0	8
	소계	834	106	24	14	5	14	13	658

있었다. 초등학교는 148곳 중 95곳, 고등학교 67곳 중 43곳으로 64%에 달했다. 전남은 834개 초·중·고교 중 176개교(21%)가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26곳 중 79곳(19%), 중학교 247곳 중 57곳(23%), 고교 153곳 중 40곳(26%)이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성범죄 고위험군 학교나 학생안전 강화학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는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형식적으로 관리만 하는 곳도 있어 적극적인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등하굣길 CC-TV

■ 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비율 (단위:%)



를 확충하고 학생·학교·경찰의 합리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11분 해질 18시 49분 달출 09시 43분 달몰 20시 51분

**강한 햇빛 여전**  
구름 많은 가운데 큰 일교차 보이겠다.

광주	구름맑음	17/28°C
부산	구름맑음	19/27°C
목포	구름맑음	19/26°C
여수	구름맑음	19/26°C
나주	구름맑음	15/28°C
완도	구름맑음	18/28°C
구례	구름맑음	16/30°C
강진	구름맑음	16/28°C
해남	구름맑음	16/28°C
장흥	구름맑음	16/28°C
순천	구름맑음	15/28°C
영광	구름맑음	16/27°C
진도	구름맑음	17/27°C
전주	구름맑음	17/27°C
군산	구름맑음	17/27°C
남원	구름맑음	15/27°C
혁신도	구름맑음	20/28°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식중독지수 자외선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풍 0.5m 0.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풍 0.5~1.0m 0.5~1.0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풍 0.5m 0.5m 목포 04:23 09:31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풍 0.5~1.0m 여수 11:15 04:48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0(화)	11(수)	12(목)	13(금)	14(토)	15(일)
날씨	☀	☁	☀	☀	☁	☀
최저/최고	18/27	19/26	19/28	20/28	22/26	21/27

## 광주·전남 수능 4만여명 접수

### 영역 B-A형 갈아타기 42% 급증

오는 11월7일 치러지는 올해 대학 수능능력시험의 광주지역 수험생은 지난해보다 99명 줄고, 전남은 285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선택에서 광주 수험생들은 쉬운 영역 A형으로 대거 갈아타았다.

8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2014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광주는 2만 1703명 전남은 1만9378명 등 총 65만 752명이 응시했다. 지난해보다 광주는 99명(0.5%) 줄었고 전남은 285명(1.5%)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1만 7770명(2.65%)이 감소했다.



익어가는 가을 가을이 익어가고 있다. 8일 광주시 남구 대지동 하촌마을 주민들이 '농촌 건강장수마을'로 지정된 후 마을 어귀에 직접 심었던 수수를 수확하며 바쁜 손길을 놀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국적으로 영역별 선택비율은 국어 A형 53.6%(광주 53.9%, 전남 52.5%), B형 46.4%(광주 46%, 전남 47.5%)이다. 수학 A형은 72.6%(광주 73%, 전남 71.7%), B형은 27.4%(광주 24%, 28.3%)이며, 영어 A형은 31.8%(광주 42.4%, 전남 28%), B형은 68.2%(광주 57.4%, 전남 72%)로 나타났다. 탐구영역은 사회 탐구 58.0%, 과학탐구 39.5%, 직업 탐구 2.5%였다. 광주지역 수험생들의 쉬운 영역 A형으로 대거 옮겨간 것이 눈에 띄었다. 영어 B형에서 A형으로의 이동은 지난 3월 13.2%에서 수능에서 42.4%로 급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軍 공항이전·훈련 중단하라”

### 광주 광산구·서구의회 T-50 추락 사고 관련 강력 요구

광주 광산구와 광주 서구의회가 최근 발생한 훈련기 T-50 추락사고와 관련, 시민과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비행연습 중단 및 군 공항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광산구는 8일 'T-50 추락에 대한 광산구 입장글'을 발표하고 "이번 사

고에 수십만 명의 시민이 매일 대형 참사의 위험을 안고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됐다"며 소음 피해 이외에도 시민,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군 공항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산구는 최근 공군이 "사고 원인 기체결함은 아니다"고 발표된 데 대해 "기체결함은 개선의 여지라도 있지만, 대도시 상공에서 급격한 기동이 수반되는 훈련은 사고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 밀집지역이 아닌 곳에서의 훈련은 조종사들의 부담을 가법하게 할 것"이라며 "훈련 여건이 개선되면 유사시 민가를 피하려 탈출 기회를 놓치거나 포기하는 일도 크게 줄 것"이라고 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국정원 사태 올바른 해결 천주교 사제 등 시국미사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12일 오후 2시30분 광주시 남동5·18기념성당에서 국정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진행한다.

김희중 대주교 주례로 진행되는 이번 시국미사는 광주대교구 소속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경민기자 kki@

## 국내서도 동성결혼 합법화 될까

### 김조광수 영화감독 첫 공개결혼 놓고 주목

김조광수 영화감독이 지난 7일 서울 도심에서 올린 첫 동성 공개결혼식이 화제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동성결혼이 제도적으로 합법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 감독 커플이 혼인신고가 반려되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앞으로 동성결혼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등에 따르면 현재 동성결혼을 규정한 국내 법 규정은 단 한 줄도 없는 상태다. 다시 말해 동성결혼을 불법으로 간주해 금지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합법으로 보고 혼인신고가 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뜻이다.

구청이나 법원에서 동성커플의 혼인신고를 반려하는 근거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법에서 널리 사용되는 '부부(夫婦)'라는 표현이다. '남편과 아내'를 뜻하는 이 표현 자체가 혼인을 '이성 간의 결합'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결혼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 측은 헌법 11조 평등권과 36조 혼인·가족생활권을 근거로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유지되고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이성애자와 차별받아서 안 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프랑스,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4개 국가다. 미국에서는 뉴욕,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등 13개 주와 워싱턴DC에서 동성결혼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성사! 결혼성사시까지...**

(백영미 이사, 유경선 부원장 출연)

**성사율 호남 1위**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광주서석초등학교졸업, 전주고등학교졸업]

초혼		재혼	
<p><b>남</b></p>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31~45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p>	<p><b>여</b></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공무원(7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p>	<p><b>남</b></p> <p>의사, 변호사 32~68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70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p>	<p><b>여</b></p> <p>VIP 희망 여성 32~45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57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3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p>

**임페리얼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영화속 장면처럼 아름다운, 품격을 넘어 예술이 되는 웨딩.

**2014년 1월, 당신을 찾습니다.**

**Art Convention 웨딩문화공간 제아트컨벤션**

제아트컨벤션과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협력점 모집중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예식부 | 예약실 0명  
연회부 | 조리부장, 조리원, 연회부장 각 0명  
관리부 | 건물관리, 회계관리 각 0명

모집기간  
2013년 9월 30일까지(우편 및 e-mail 접수분에 한함)

접수방법  
우편접수 :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08번길 46(신안동)  
e-mail 접수 : jarthall@naver.com

제출서류  
이력서(사친첨부) 1부, 자기소개서(경력력주 작성)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문의전화 062-383-9901